

“부동산, 정신 번쩍 드는 심판 받아”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장관 후보자들 검증실패 아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요구
사면, 국민 공감대 따라 판단
코로나 11월 집단면역 앞당길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출입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아쉬웠고,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각종 현안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3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축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 거듭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 정책의 재검토 및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야당이 임해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사실상 적임자라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진다. 무안주식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다음 정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며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언급 없이 국민 공감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던 것과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고령·건강 문제와 국민 통합, 사법정의 등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반도체 경쟁력과 과거 선례 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북미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여자 프로배구단 광주 연고지 확정

2021-2022시즌 V리그 합류

최근 창단한 페퍼저축은행 여자 프로배구단이 연고지를 광주로 확정했다. 〈관련기사 22편〉

광주시는 “페퍼저축은행 여자프로배구단이 연고지를 광주시로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페퍼저축은행 매튜 장 대표이사는 이병훈(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에게도 직접 전화

를 걸어와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페퍼저축은행 여자 프로배구단은 지난 4월 20일 제7구단으로 창단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021-2022시즌 V리그 합류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호주계 저축은행인 페퍼저축은행은 2013년 10월 영업을 시작했다. 경기도와 호남 지역에 영업 기반을 두고 성장해 2020년 12월 말 기준 총자산 규모 ‘톱5’ 저축은행으로 도약했다.

사실상 수도권에 영업 기반을 두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여자 배구단이 광주를 택한 데는 지역의 결집된 역량이 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그동안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김준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김민철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등으로 유치추진단을 꾸려 공을 들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페퍼저축은행이 광주를 연고로 확정했지만 연고지 확정에 따른 지원 방안 등 구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 적잖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법 비웃는 전두환

항소 하고도 “불출석 재판 가능”
‘광주 5월 법정’에 안 나와
재판부, 첫 공판 24일로 연기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다음 재판에도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전씨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궤석(跼席) 재판(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재판)으로 진행할 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월 단체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서라도 출석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두환(90·사진)씨가 ‘5월’ 광주 법정에 서지 않을 전망이다.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2주 뒤 잡힌 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이 전해지면서다. 〈관련기사 6편〉

5월단체와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항소해 놓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서 재판 진행조차 늦추고 있는 데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10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던 사자명 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 이날 예정됐던 재판은 전씨의 불출석으로 5분 만에 마무리됐다. 현행 형사소송법(365조)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5·18 묘지 참배 호남 달래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둔 10일 광주를 방문하는 등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들 초선 의원들은 “5·18은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편〉

조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초선 의원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군부에 맞선 오월 광주 의 희생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합과 화합의 씨앗이 돼야 하며, 국민의힘 초선들은 광주 정신으로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힐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광주 시민에게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의 의지를 직접 보여주어야 했다.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통과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 총선 때 오만 자만해 의석

을 많이 얻지 못했다. 국회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민주당이 우리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해주면 상생과 화합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광주 시민의 말씀을 많이 듣고 (지도부와 당에)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 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것에 분노하고 안타깝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서 당시의 진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광주 시민에게 사죄해 국민 통합과 화합의 길에 조금이나마 노력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진·박형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 9명과 김재섭·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이날 5·18 묘지를 참배하고 옛 전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 6인 모임 2주 연장... 여수·고흥 제외 ▶2편

굿모닝 예향 - 지금은 오디오 시대 ▶18-19편

김선빈·터커, 베테랑의 힘 보여오다 ▶22편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